

대구 · 경북

「미리 알아보는 기상기후정보」 5월호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2019년 4월 25일 10시 발표

5월의 기상전망

- 기 온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예보 1주는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겠으며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 강수량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주 (4.29.~5.5.)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5.1~16.7℃)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4.8~19.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2주 (5.6~5.12)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5.9~17.3℃)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9.9~24.8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3주 (5.13~5.19)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6.4~17.6℃)보다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7.5~31.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4주 (5.20~5.26)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7.8~19.0℃)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5.1~18.1mm)과 비슷하겠습니다.

※ 평년 : 1981 ~ 2010년

5월의 대표 기상현상

■ 우박



얼음 입자나 덩어리로 된 강수로, 직경 0.5~5cm 또는 그 이상 되는 크기로 내리기도 함. 영상 30도 내외의 따뜻한 지면 5km 상층으로 영하 20도 가량의 찬 공기가 지나며, 급격한 대기불안정에 의해 대기의 강한 상승작용이 발생. 이 과정 중 구름 내의 물방울이 영하의 층을 지날 때 얼음 입자가 되어 하강하다가, 상승 대기에 의해 상승하며 입자가 커지고 그 질량이 상승 대기의 힘보다 커지면 지면으로 하강. 농산물이나 재산, 인명 등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됨.

■ 폭풍



대기불안정에 의한 상·하층 대기의 환류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의미함. 풍속이 초속 13.9m 이상으로 10분간 계속될 경우 폭풍으로 분류하고, 소낙비 및 우박이 동반되기도 함.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태풍에 가까운 풍속이므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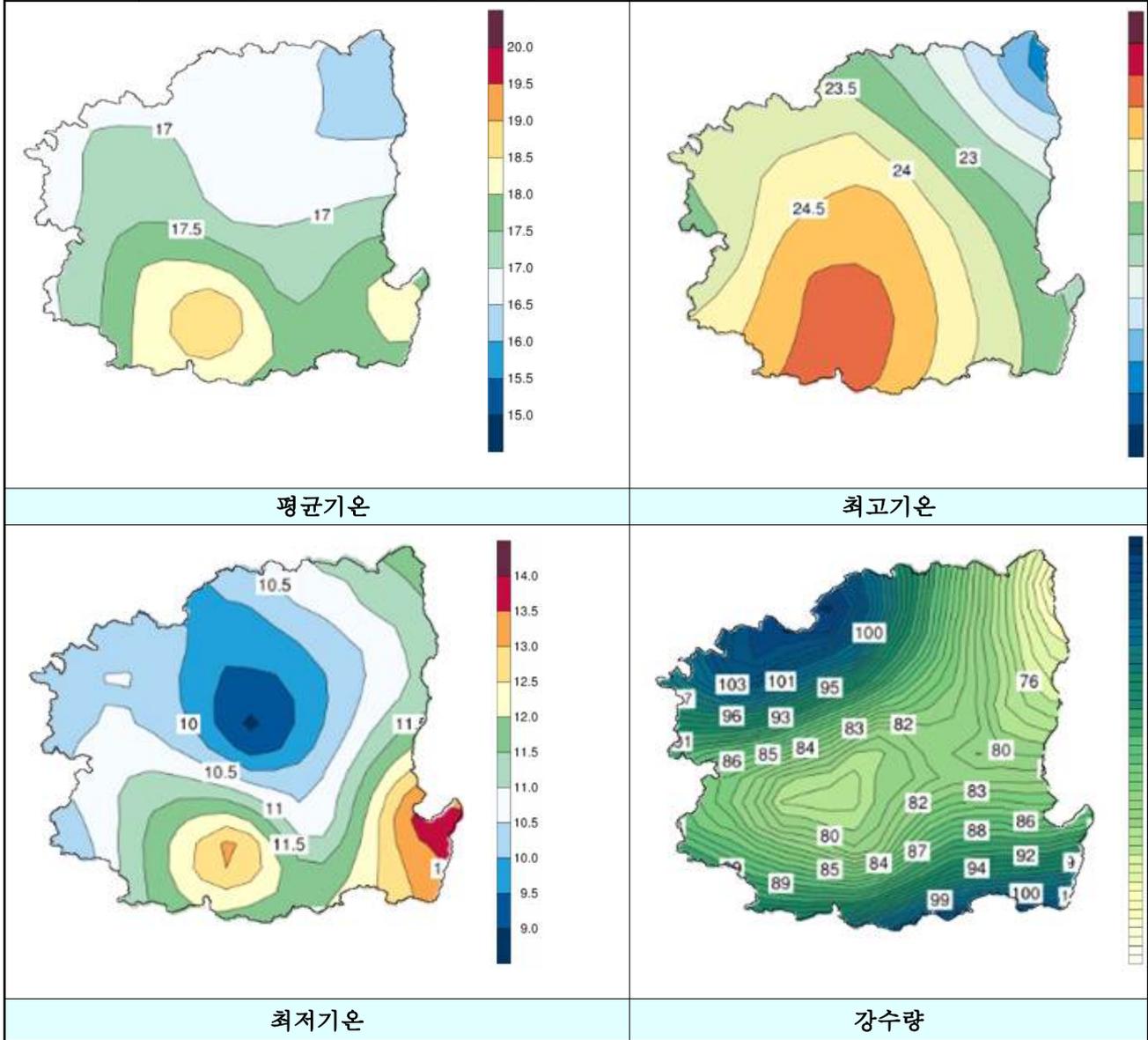
5월의 대구·경북 지점별 평년 기후정보

■ 지점별 기후 평년값 및 분포도

※ 안동은 1983년부터 관측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기온	19.1	17.4	16.1	18.2	16.9	17.2	16.7	16.8	18.0	17.3
최고기온	25.3	24.2	20.7	23.2	23.6	23.9	22.5	24.8	24.9	24.5
최저기온	13.5	10.8	11.6	13.8	10.0	10.6	11.1	8.8	11.3	10.4
강수량	80.0	91.5	70.0	85.2	109.9	106.1	75.6	78.3	77.0	87.2



■ 대구·경북 5월 평균 기상현상일수

(단위 : 일)

구분	대구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울릉도
우박	0.1	0.1	0.03	0.06	0.03	0.03	0.03	0.03
폭풍	0.06	0.57	0.03	0.03	0.0	0.0	0.0	1.93

5월 기후 극값

구분		대구	울진	안동	포항	영주	구미	울릉도
기온 (℃)	일평균 기온 최고	29.5 (2014.05.31)	26.4 (2014.05.27)	26.3 (2018.05.17)	27.1 (1988.05.19)	25.4 (2014.05.31)	27.4 (2014.05.31)	25.6 (2017.05.30)
	일최고 기온 최고	37.4 (2014.05.31)	34.0 (2017.05.19)	35.1 (2000.05.25)	36.1 (1983.05.31)	35.2 (2014.05.31)	36.7 (2014.05.31)	29.4 (1979.05.29)
	일최저 기온 최저	1.8 (1934.05.01)	2.8 (2003.05.09)	1.8 (1976.05.05)	3.7 (1953.05.03)	1.2 (1978.05.07)	1.3 (1981.05.04)	3.8 (1947.05.09)
강수량 (mm)	일 강수량 최고	111.5 (2003.05.30)	99.0 (2010.05.23)	105.0 (1993.05.13)	122.0 (2003.05.30)	110.0 (1980.05.25)	94.0 (2003.05.30)	140.5 (2006.05.06)
풍속 (m/s)	일최대 풍속 최고	24.3 (1916.05.07)	21.7 (1982.05.04)	14.2 (1988.05.12)	29.3 (1956.05.05)	14.2 (1999.05.19)	13.5 (1988.05.12)	33.3 (1961.05.10)
	일최대 순간풍속 최고	24.8 (1981.05.12)	34.0 (1996.05.09)	24.8 (1997.05.30)	28.0 (1977.05.14)	20.8 (1997.05.19)	17.8 (2000.05.01)	46.6 (1984.05.02)

※ 일 최심 신적설 : 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일 최심 적설 : 내려 쌓인 기간에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

이 달의 절기

입하(立夏)



24절기 중 일곱 번째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45도에 이르고,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

- 시기 : 양력은 5월 6일 무렵, 음력은 4월
- 특징 : 이 무렵에는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신록으로 인해 푸름이 짙어짐.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 또는 '초여름'이라는 뜻을 지니며, 누에치기를 하기도 함
- 속담 : 입하 바람에 씨나락(벼 종자) 몰린다.
 → 예전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할 때 입하 무렵에 못자리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몰려, 못자리에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의미

소만(小滿)



24절기 중 여덟 번째로 태양이 황경 60도를 통과할 때이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찬다는 의미

- 시기 : 양력 5월 21일 무렵, 음력 4월
- 특징 : 이 무렵에는 모내기 준비가 바빠지며 보리가 익어감. 과거 '보릿고개'라 하여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연명하던 시기가 이 때임.
- 속담 : 소만 바람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
 →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의미

생활 속 날씨 이야기

Q 대구·경북 지역 과거 기상관측 기간 동안 5월 중 관측된 우박에 의한 피해상황은 어떠한가요?

A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역 (시·군)	우박 관측일자	피해상황	우박 지름(cm)
대구시	2018.5.30	경북지역 10개 시·군 392ha 피해(사과 242.2·복숭아 77·자두 47.3·배 12 등)	1.5
	2003.5.22	499ha 피해(안동 88·의성 150·청송 261 등, 사과·고추·자두·담배)	1.0
	1997.5.19	경북북부내륙지역 874ha 피해(영주시 462·영양군 311.5·예천군 55·안동시 45 등, 사과 549.7·담배 236.5·고추 67.3·배추 20.7·콩 0.3 등)	0.5
울진군	2000.5.19	660ha 피해(영주 407·봉화 70·영천 40 등 12개 시·군)	0.5
안동시	2017.5.17	봉화 15ha 피해(사과밭 7·고추, 감자, 수박밭 8), 의성 85ha 피해	1.0
	2017.5.13	185ha 가랑 피해(사과 150·고추 30·담배 5)	1.3
	1990.5.14	40ha 피해(담배·사과·인삼·고추·배추밭·포도원 등)	1.0
상주시	2004.5.20	농작물 193ha 피해(안동 120·김천 30·예천 20·영주 12ha, 사과 142·담배 29·고추 10 등)	0.8
봉화군	2000.5.19	70ha 피해(복숭아·사과 등)	0.7
영주시	1997.5.19	462ha 피해(사과·담배·고추·배추·콩 등)	1.0
	1990.5.14	113ha 피해(담배·사과·인삼·고추·배추밭·포도원 등)	0.5, 0.9

이상기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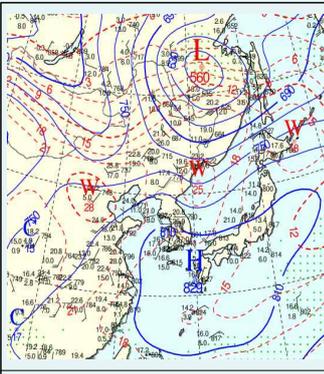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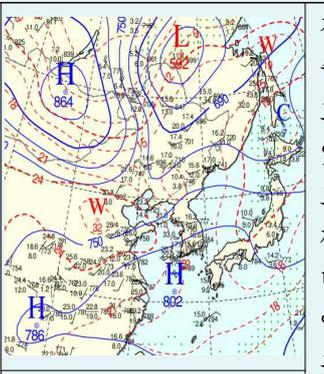
○ 건조 및 가뭄 | 2017년 5월 (강수량 및 강수일수)

-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구·경북 강수량이 23.6mm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으며, 강수일수도 4.9일로 최소 3위를 기록하였음.

▪ 대구·경북 주요 지점 2017년 5월 월 강수량(mm) 및 강수일수(일) 현황

주요 지점	대구	안동	포항	상주	문경	영주	울진	봉화	울릉도
월 강수량(mm)	33.1	22.0	19.8	20.2	25.0	10.8	28.5	18.3	24.5
강수일수(일)	5	5	3	7	6	7	3	6	8

- 2017년 5월 925hPa 편집일기도 분석(고기압 영향으로 인한 한반도 무강수일 분석)

 <p>2017. 5. 19. 09KST</p>	<p>대한해협 부근으로 고기압 중심이 위치하며 그 영향력이 일본 남부와 남중국해에 까지 미쳐 우리나라는 무강수를 보이고 있음. 14-23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약하게 저기압 영향을 받아, 약한 강수가 있거나 연속 무강수를 보이는 곳이 있었음.</p>	 <p>2017. 5. 28. 09KST</p>	<p>제주도 서쪽으로 고기압 중심이 위치하고 화남에서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무강수를 보이고 있음. 26일에서 30일까지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약하게 받아, 비가 내린 곳도 있었으나 연속 무강수를 보인 곳도 있었음.</p>
---	---	--	--